

중립 (유지)

강석오 수석연구원
☐ sokang@shinhan.com

고준혁 연구원
☐ jhko0330@shinhan.com

신한생각 연초 이후 지표 개선, 상호관세 단기 영향은 제한적

광고/커머스 지표 개선되었으나 상호관세 발표로 물가 상승 및 소비 둔화 우려 발생. 미국 매출 미미해 당장은 영향 제한적이거나 경기 흐름 관찰 필요

4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100.7", 3월 동향지수 "10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는 4월 광고경기전망지수를 100.7로 발표, 3월 100.6 대비 소폭 상승. 3월 동향지수는 101.2로 2월 101.6 대비 0.4p 하락. 2025년 1~3월 모두 전망지수 대비 동향지수가 소폭 상회하는 상황이라 업황 저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 온라인채널 전망지수는 101.1로 종합지수 대비 높았고, 3월 대비 4월 온라인 광고 시장 분위기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업종별로는 어린이날 및 성수기 대비하는 음료 및 기호식품(125.0), 지역 축제 증가로 계절적 성수기 맞는 관광서 및 단체(107.5), 아파트 분양 광고 홍보 늘리는 건설/건재 및 부동산(105.3) 부문 광고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2월 대비 전망지수는 98.7을 기록해 광고비 감소가 예상되며, 2024년 6월 이후 전년대비 전망지가 100을 하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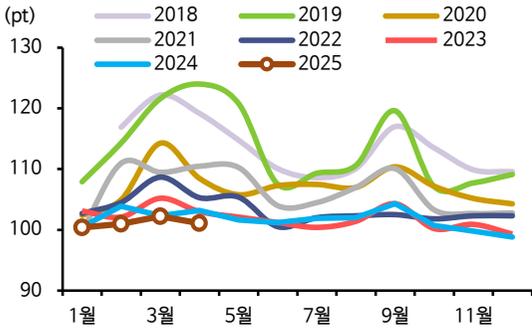
2월 소매판매액 YoY -2.7%, 온라인 쇼핑 거래액 YoY +3.5%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한국 전체 소매판매액은 44.4조원(YoY -2.7%),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1조원(YoY +3.5%)을 기록. 2024년이 윤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소매판매액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각각 0.7%, 7.2% 수준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커머스 업황도 티메프 사태, 소비 위축 우려 대비 준수한 성과 보이고 있으며 추가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저점 확인했다고 판단. 상품군별 전년대비 거래액 성장률을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갤럭시 S25 출시 효과로 14.3%,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21.8%, 화장품 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36.1% 기록. 의복(-6.9%), 신발(-4.7%), 가방(-14.7%)은 역성장, E쿠폰 서비스는 티메프 사태 영향 이어지며 202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년대비 -38~46%, 2월 -48.5% 기록. 물가 상승으로 두 자릿대 상승률 나타났던 음식료품은 2025년부터 높은 한 자릿대에 진입, 음식서비스는 여전히 두 자릿대 성장 지속

결론: 광고/커머스 모두 저점 형성. "관세 영향" 당장은 제한적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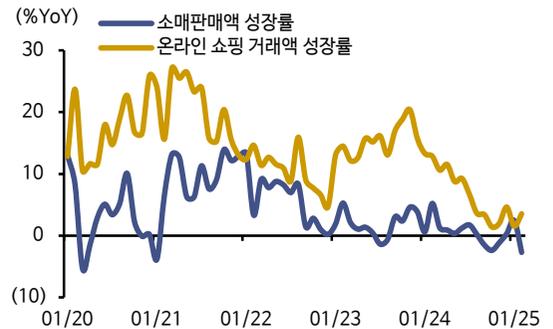
2025년 들어 광고경기전망지수와 소매판매액 모두 작년보다 성장률 개선. 저점 확인하는 모습이지만 기업들의 유지 트랙백 및 실적 성장성은 여전히 불투명. 네이버는 3/12 플러스스토어 앱 출시 후 3주간 사용자 338만명 확보. 이번 분기는 대규모 마케팅 진행한 만큼 하반기 실적 및 이익률 관찰 필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미국 매출 비중이 미미해 단기 영향은 제한적. 다만 향후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과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e커머스 기업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것. 4월 3일 인터넷 기업들 주가는 상승했으나 완전한 무풍지대는 아니라 판단

광고경기전망지수 추이 (온라인 채널)



자료: KOBACO, 신한투자증권

소매 판매액 및 온라인 쇼핑 거래액 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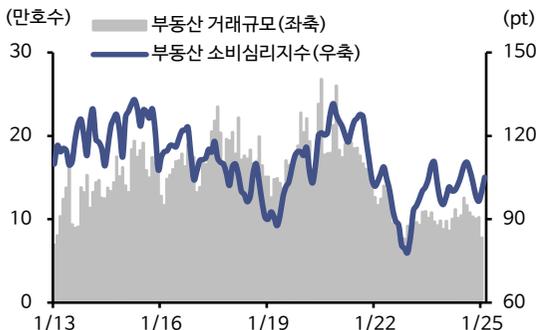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한국 광고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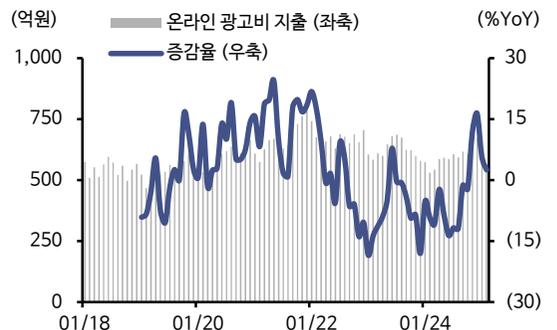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BACO, 신한투자증권

부동산 거래량 및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PC DA(디스플레이 광고) 지출 추이



자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석오, 고준혁)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	-----------	--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4월 3일 기준)

매수 (매수)	90.76%	Trading BUY (중립)	7.23%	중립 (중립)	2.01%	축소 (매도)	0.00%
---------	--------	------------------	-------	---------	-------	---------	-------